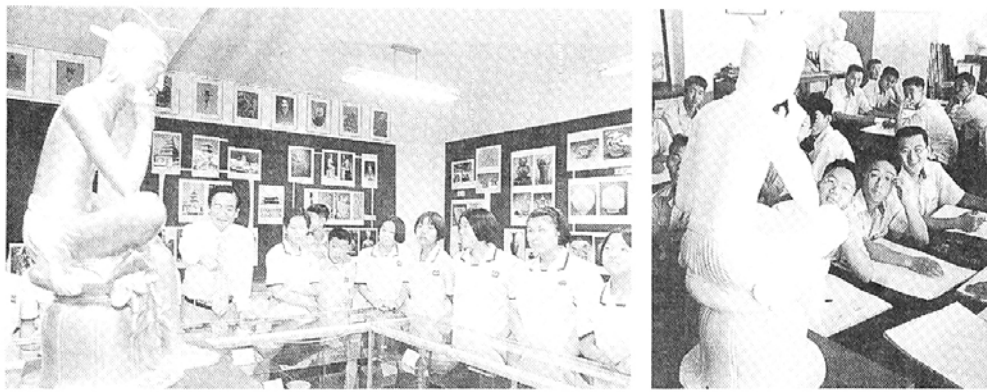


# 학교마다 꽃피는 '민족의 얼'

현대불교신문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민족의 얼과 전통문화 화를 익힐 수 있도록 '중·고교에 대생용 미륵반가상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이 불교계를 비롯 정계 재계 문화계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속에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동참자들의 귀한 인연을 모았다.

(편집자 주)



서울 영림중학교내 박물관 중앙에 전시되고 있는 미륵보살반가상. 윤중영교장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울산 중앙고 2학년 미술 소모시간에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미륵보살반가상.

## 교육현장의 반응

미륵반가상이 서울 구로구 영림중학교(교장 윤중영) 미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교실하나를 개조해 만든 이 박물관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라왕관모형, 석굴암 내부모형도, 한국고미술학회에서 미술품, 민속품등이 전시되어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박물관 가장 중앙에 자리잡은 국보 제83호 미륵보살반가상이다. 이 반가상

은 다음날 전국중고교 대생용 미륵반가상보내기운동을 신문을 통해 접한 이 학교 윤중영교장이 모형을 직접 구입해 금을 들여 전시하고 있는 것. "우리것을 먼저 알지 않고서 무조건 세계화만 외치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우리것에 대한 자긍심을 품소 느끼게 하기 위한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윤교장은 박물관을 찾는 어린 제자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처럼 미륵반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국보이자 선조의 얼이 깃든 미륵반가상은 신비적 정신적 표현양식으로 미술교육적 가치가 높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같은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 중앙고 미술교사 이창락씨(55세)는 지난 8월 울산 불자 임무식때부터 기증받아 당장 2학년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당초 대생용 학년초에 학습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륵반가상

을 받고는 금년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판단으로 2시간을 지도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참여도와 효과도 컸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상 미술수업은 고교의 경우 2학년 부터 3학년까지 매주 단 1시간 배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현실이 아깝다는 이교사는 내년부터는 3월초 신학기에 3시간 정규코스로서 반가상 대생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서울 영림중

금뿔입혀 미니 박물관 전시 "문화 자긍심 절로 느껴요"

미륵반가상이 서울 구로구 영림중학교(교장 윤중영) 미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교실하나를 개조해 만든 이 박물관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라왕관모형, 석굴암 내부모형도, 한국고미술학회에서 미술품, 민속품등이 전시되어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박물관 가장 중앙에 자리잡은 국보 제83호 미륵보살반가상이다. 이 반가상

## 울산 중앙고

반가상대생 학생들 호응 신학기 3시간 정규코스

현행 교육과정상 미술수업은 고교의 경우 2학년 부터 3학년까지 매주 단 1시간 배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현실이 아깝다는 이교사는 내년부터는 3월초 신학기에 3시간 정규코스로서 반가상 대생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은 식구 참여 가정

송석구 동태총장 가족 "자라나는 세대 주체성 함양 제격"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세대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까. 미륵반가상의 교육적 활용은 우리 것 우리의 미(美)를 이해하게 하는 주체성을 길러 줄 것으로 봅니다." 송석구 동국대총장(56세)은

## 전성훈씨 가족

35) "우리나라와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불자가 아니라해도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민족의 주체성을 체득케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클 것입니다." 셀러라엔 전씨는 조석으로 빠짐없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독실한 불자다.

## 동점 학제

은평구 사암연합회 구내 전체 중고교 전달

서울 은평구사암련(회장 성운)은 지난 3월 초 구내 중고교 전체에 보내달라고 22구좌를 신청했다. 또한 선산 도리사주지 법당도 구내 전체 중고교에 보낼 예정이다.

## 유용숙씨 개인 최다 50구좌 신청

유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은 개인 차원의 동참으로는 최다인 50구좌를 동참했다. 윤희경이 기증한 반가상은 일괄 발송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대전 충남지역 중고교 및 종합복지관으로 보내졌다.

## 부산지역 기증학교 가장 많아

불심홍법원(이사장 정관섭)이 부산 영도 동래구 지역내 종합학교와 일반 중고교에 기증한 것을 비롯, 부산지역은 학교 차원의 동참은 물론 기증한 기를 희망하는 학교도 가장 많았다.

## 중고교에 미륵반가상 보내기 운동

- 1구좌 10만원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은리인 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특별기고

웃고 계시다. 신비의 미소(微笑). 그 웃음은 사유(思惟)의 미소다. 삼매의 경지가 오른 손 들쭉 손가락 인지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도 나타나 있다. 인지가 중지보다 지긋이 누르고 있다. 삼매의 기쁨으로 저절로 일어난 격정을 도력(道力)으로 지긋이 억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미소를 관음보살상이나 미륵보살반가상에서 본다. 저런 미소를 자를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신비의 미소를 들라면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의 '모나리자'를 말한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해 보라. 미륵보살반가상상의 미소와 모나리자의 미소를 견주어 보라. 다시 물어본다. 가장 훌륭한 사유상(思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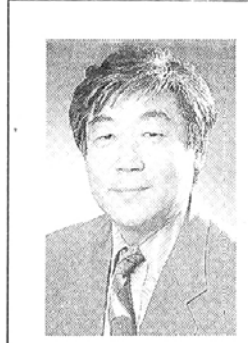
의 자리가 아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스퍼스의 놀라운 이를 더 할 수 없는 찬사로 평가한다. "광풍사의 이 불상에는 진실로 완성된 인간 실존의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적인 속박을 초월하고 도달한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淸淨)하고 가장 원만한, 그리고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징으로 생각한다. (중략) 과연 인류가 낳은 일대 걸작품이다."

## 생각하는 누님의 삼매

이 보살상에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일본 어떤 대학의 미술전공 학생이 이 보살상에 매혹되었다. 그는 갑자기 뛰어 올라가 보살상을 껴안았다. 격정을 참지 못한 것이다. 그 바람에 새끼 손가락이 부러졌고 매스컴에서 야단이 났었다. 보살상의 새끼 손가락을 가져갔던 대학생은 지수하고 그래서

## '깨침의 미소'

像)을 들고 있다. 그러면 또 어거스트 로댕(1840~1917)의 '생각하는 사람'을 든다. 이것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친 까닭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신비의 미소를 띤 미륵반가상상은 일본 국보 제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보살상 미륵보살반가상상은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京都)의 광동사(廣隆寺)에 모셔져 있다. 일본에 있다고 일본의 것은 아니다. 그 소재가 금강송(金剛松)이다. 강송(剛松)으로도 불리는 이 소나무는 뒤늦게 붉은 충양목(赤楊木)이나 적송(赤松)이란 이름으로 유명하다. 이 소나무는 공갈을 짓는 목재였고 지금은 문화재 보수에 없어서는 안될 우리나라의 소나무다.



서희건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지금쯤 잘 보이지 않게 보수되었다. 우리가 준 일본 국보 제 1호 미륵보살반가상상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금동 미륵보살반가상상이 있다. 우리나라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상이요. 같은 시대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다 빈치는 15세기에서 16세기를 걸쳐 산 위대한 인물이다. 로댕 역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을 산 위대한 예술가다. 그러나 우리는 금동미륵보살반가상상의 불모도, 목제미륵보살반가상상의 불모도 모른다. '모나리자'나 '생각하는 사람'보다 1천년에서 1천5백년이나 앞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신성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서구보다 1천년을 앞선 '미소'이고 1천5백년을 앞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가고 있는 까닭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치기어린 흥분을 한다. 즉각 일본 국보 1호와 우리의 국보 83호를 비교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양 조각의 비교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일본 것은 소재가 목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 금과 동을 합금해 주조한 작품입니다. 한 불모장(佛母匠)이 똑같은 불상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보다는 주조가 더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또한 그렇지요. 신비의 미소와 삼매의 미소는 다르지요. 우리 것은 천년 전의 깨침의 웃음이고 생각하는 누님의 삼매이지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올가을 추석명절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멋이 담긴

# 『차(茶)』와 『다기(茶器)』를 선물합시다

문화부에서 선정하여 외국의 국가 수반에게 선물용으로 사용되던

## 초의 선사의 다기

(다관+속우+찻잔5개+받침5개+초의차)  
가격:150,000원

한국다도의 맥은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립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문손인 용운스님께서 초의선사가 생전에 쓰시던 다기를 재현해 솜결과 맥을 그대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의선사(1158~1213)는 고려 말에 들어와서 불교의 쇠퇴를 막고자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문손인 용운스님께서 초의선사가 생전에 쓰시던 다기를 재현해 솜결과 맥을 그대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도**

한국다도의 맥은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립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문손인 용운스님께서 초의선사가 생전에 쓰시던 다기를 재현해 솜결과 맥을 그대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분청다기**

좋은 찻잎과 특별한 제다공법으로 완성된

**초의차**

초의선사에 의해서 정제되어온 찻잎과 찻잔 용운스님께서 수년간 제다공법의 본색 연구 끝에 마침내 초의차의 탄생 시켰습니다

초의차의 성분과 효능

1. 찻잎의 한 기준을 약 15%로 채취 하였으므로 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함께 녹차의 맛과 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 좋은 찻잎만을 골라 만들었으므로 우려내고 난 후의 찻잎 상태가 처음 만 찻잎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초의차는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았고 김포에서 이를 처리한 것이므로 제다방법은 원소이다. 그 맛과 향이 조금 더 좋습니다.

대만 동정산의 차잎을 우리의 취향에 맞게 만든

**동정오롱차**

가격: 23,000원

대만의 고산차 중에서도 으뜸을 자랑하는 동정오롱 차 동정오롱차의 차잎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제다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고산오롱차나 동정오롱차에서 느껴지는 익겨운 향을 제거해 그 향이 깊고 부드러운 맛과 향을 줍니다. 대만에서는 해발 1000미터의 높은산에서 나는 것은 모두 고산오롱차라고 부릅니다. 동정오롱차는 해발 1000미터 고산차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선물꾸러미**

1. 초의선사 다기 - 가격 150,000 (다관+속우+찻잔5개+받침5개+초의차)
2. 분청 다기 - 가격 90,000 (다관+속우+찻잔5개+초의차)
3. 초의차 선물 꾸러미 - 가격 43,000 (초의차1통+감로차1통)
4. 오롱차 선물 꾸러미 - 가격 36,000 (오롱차2통)
5. 초의 오롱 선물 꾸러미 - 가격 45,000 (초의차+동정오롱차)
6. 초의 오롱 사은선물 꾸러미 - 가격 56,000 (초의차+감로차+오롱차)

\*선물 꾸러미는 추석사는 선물로 20~30%의 가격에 드립니다\*

초의문화재단 차, 다기 사업부      전화: 732-2317~8, FAX: 732-2319      초의문화재단에서는 『차강의』(매주 수 금)와 『참선 강의』(매주 화)도 하고 있습니다. (참선강의는 무료)